

미래세대 위협...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해야

광주지역 시민단체들 간담회

자매결연 도시 국제연대 동참 요청
민·관·정 협의체 구성 등 의견 제기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25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광주시의회 5층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주최로 '긴급진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 활동 현황 등을 살펴봤다.

이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철갑 조선대 작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방사능 안전성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방사능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뿐만 아니라 방사능 종류, 노출대상과 과정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르고 안전에 관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다. 방사능 오염수가 위험하다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안전하며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점으로 일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장기보관 등의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며 "방류는 오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아니고, 오염수를 희석해도 오염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국장은 "한 번 방류하게 되면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래 세대까지 안전과 환경을 위협 할 수 있고, 게다가 현재 일본 정부가 밝히고 있는 자료는 불충분하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국장은 또 "오는 5월26일 서울에서 시민사회, 종교계, 노동계 등이 함께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요구와 대응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제연대활동을 제안해 놓은 상황이다"며 "빠르면 6월부터 국제적인 연대활동도 전

개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그동안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에서 추진했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 활동 및 탈핵 활동을 공유하며, 앞으로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 광주시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고 국제연대 동참을 요청할 것 ▲민·관·정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난, 오늘부터 방구를 참기로 했다.

게임으로 배우는 기후위기

코믹게임 환경그룹 '그린 플레이' 제작



'코믹 게임과 함께하는 환경 캠페인' 누구나 유쾌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을 통해 환경보호에 대해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술, 건축 영화, 디자인 작가와 국내외의 연구기관, 환경단체가 함께하는 협업 캠페인 '2020 아르코 공공예술 사업: 기후 시민 3.5'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된다.

코믹 게임을 만들고 배포해 자발적인 환경운동의 가능성을 제안하는 코믹게임 환경 캠페인 그룹 '그린 플레이'가 제작한 '방구를 참아

라(Hold Your Fart)는 '보잘 것 없는 내가 파괴되어가는 지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난 오늘부터 방구를 참기로 했다.'는 글과 함께 시작되는 웹기반 캐주얼코믹 모바일 게임이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손가락 세 개를 이용해 자신이 사랑하는 자연물들을 피해 방구를 참아내는 게임이다.

오는 6월15일에는 속편 '노인과 바다 플라스틱'도 출시된다. 환경을 파괴하는 대부분의 행위가 기업과 기관에 의해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분리수거 실사 액션 게임이다. 게임은 그린플레이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장섭 아트디렉터와 함께 '그린 플레이'를 창립한 전방위 예술가 송호준 작가는 청정 바다 완도의 미역과 김 등 해조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젝트 '미래학교 식량 채집-해조류 판'을 제 17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과 미래학교 온라인 채널에서 전시 중이다.

한편 온·오프라인으로 열리는 '기후시민 3.5' 프로젝트에서는 '기후 미술관-우리 집의 생애',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식문화-기후밥상', '기후캠프' 등 20여개의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이중 '기후 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영화제는 오는 6월 19일(오후 6시-8시) 광주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북구, 여성들의 건강한 삶 지원

'여성행복지원센터' 본격 운영

광주시 북구가 지역내 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마련했다.

25일 북구에 따르면 여성의 삶을 응원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앞장 서기 위해 이달부터 북구 여성행복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민선 7기 대표 공약 중에 하나인 북구여성행복지원센터는 출산·육아, 경력단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고자 지난 21일 광주패밀리랜드 자동차극장에서 열리는 '가족과 함께 영화감상 나들이'로 첫 사업을 시작했다.

이어 ▲경력단절 중·장년층 대상 마을 돌봄 활동가 양성교육 ▲찾아가는 육아상담 ▲2030·4060 공감토크 ▲아빠의 밥상 등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다. 자세한 일정과 참여방법은 북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동구' 광주시 동구가 건전한 양육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25일 동구는 산수1동 마을사랑채에서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했다. <광주시 동구 제공>

지리산 반달가슴곰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어미곰 4마리, 새끼 6마리 출산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지리산 반달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6마리의 새끼를 출산한 것이 확인돼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순항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리산에서 활동 중인 멸종위기 반달가슴곰의 동면지 조사를 통해 4마리의 어미곰이 새끼 6마리를 출산했다. <사진>



보다 뛰어난 적응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동면지 및 인근 지역에 설치한 무인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됐다. 4마리의 어미곰 새끼 1~2마리씩 출산, 총 6마리의 새끼 반달가슴곰이 태어난 것이 카메라에 담겼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출산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2012년 야생에서 태어난 'KF(한국 원산지)-52' 인식번호의 반달곰은 2017년 울주 피해로 인해 앞발이 절단되는 사고를 겪었음에도 지금까지 총 7마리의 새끼를 출산했다. 특히, 이 개체는 연이어 새끼를 출산하는 등 야생에서 다른 어떤 개체

지난 2004년 지리산에 처음으로 방사된 'RF(러시아 원산지)-05' 반달곰은 올해 18살(사람 나이로 70대)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출산했다. 이는 생태적으로 흔치 않은 사례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올해 태어난 개체 6마리를 더하면 현재까지 지리산, 덕유-가야산 일대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의 총 개체 수는 최소 74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